



으름난초 / *Galeola septentrionalis* Rchb.f.

| 구분 | 설명 |
|------|---|
| 생물분류 | 식물 |
| 속국명 | 으름난초속 |
| 과국명 | 난초과 |
| 과명 | Orchidaceae |
| 일반특징 | <p>요약설명 : 난초과 여러해살이풀로 우리나라의 충청남도 태안군, 전라북도 진안군, 전라남도 보성군, 영암군, 제주도에서 자란다. 일본과 중국에서도 볼 수 있다.</p> <p>분포지역 : 일본, 중국 / 한국(충청남도 태안군; 전라북도 진안군; 전라남도 보성군, 영암군; 제주도)</p> <p>형태 : 여러해살이풀, 부생란.</p> <p>크기 : 높이 50~100cm</p> <p>꽃색 : 갈색, 노란색</p> <p>개화기 : 7월, 6월</p> <p>잎은 삼각형으로서 뒷면이 부풀고 마르면 가죽같이 된다.</p> <p>꽃은 6~7월에 황갈색으로 핀다. 씨방과 꽃받침 뒷면에는 갈색 털이 있다. 꽃받침조각은 긴 타원 모양이다. 꽃잎은 꽃받침조각과 비슷하며 다소 짧고 털이 없다. 꽃잎 전체는 입술모양이고 노란색이다. 또한, 넓은 달걀모양이고 끝이 둥글거나 몽뚝하며 안쪽에 돌기가 있는 줄이 있다. 가장자리는 잘게 갈라진다. 암술대는 약간 길게 굽는다.</p> <p>열매는 긴 타원 모양이고 붉은색으로 익는다. 씨앗은 날개가 있다.</p> <p>줄기는 곧게 서고 윗부분에서 가지가 갈라진다. 갈색의 짧은 털이 촘촘하게 나 있다.</p> <p>뿌리는 옆으로 길게 뻗고 비늘 같은 잎이 달린다. 길게 뻗는 뿌리 속에 버섯의 균사가 들어 있다.</p> <p>숲 속에서 자라고 썩은 균사에 기생하는 식물이다. 엽록소가 없어 초록색을 띠지 않는다. 으름같은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으름난초라고 한다.</p> |